



2020  
아드라코리아 사업보고  
Annual report



# 2020 아드라코리아 사업보고

Annual report

## CONTENTS

- 03 감사의 글
- 04 아드라 소개
- 06 아드라 미션
- 07 해외사업
  - 인도적지원 사업
  - 해외아동결연 사업
- 12 국내사업
  - 무료급식사업
  - 김장나눔사업
  - 사랑의 집짓기
- 14 특별사업
  - 국내 코로나 피해 지원
  - 해외 코로나 피해 지원
- 16 대복지원사업
- 18 재정 보고
- 20 후원자 명단
- 22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감사의 글

## 2021년에도 아드라코리아는 변함없이 이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하루하루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고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사회 취약계층에 더 가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의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아드라코리아는 본연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 무료급식이 중단되었지만, 14년 동안 종로에서 펼쳐오던 무료급식을 신속히 간편식으로 전환하여 급식을 진행하였으며 지금도 매주 일백여명에게 급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경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시설에 긴급물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저소득층과 지역병원, 난민들을 위한 긴급식량 제공과 위생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와 같은 봉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후원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동의 제한과 방역의 문제로 일일이 직접 찾아가 손을 잡고 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후원자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마음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와 국내의 이웃들에게

가장 잘 전달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아드라코리아는 변함없이 이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드라코리아 이사장  
강순기



# 세계 속의 아드라

아드라는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Where We Work

- ① 아드라 인터내셔널
- ② 중앙 아메리카 지역사무소
- ③ 남아메리카 지역사무소
- ④ 유럽 지역사무소
- ⑤ 유로 아시아 지역사무소
- ⑥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 ⑦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 ⑧ 아시아 지역사무소
- ⑨ 남태평양 지역사무소





**ADRA is..**

#### **선두적인 국제 민간구호단체입니다.**

아드라는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구호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18년 미국에서 설립된 민간원조단체로서 1997년, 유엔(UN)경제사회이사회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국제NGO입니다. 아드라코리아는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등록된 국제개발구호기구로 118개의 아드라 국가사무소 중 23개의 지원국 사무소에 속하여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외계층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외 계층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아드라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배출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영적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DRA

## 아드라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민족적,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연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4천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난민지원, 식수지원, 교육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 필리핀 탈 화산 폭발피해 지원



긴급제공된 마스크의 수

**10,000개**



마스크를 공급받은 필리핀 피해주민의 수

**5,000명**

2020년 1월 12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의 탈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 기둥이 10킬로미터 이상 치솟아 화산쇄설물을 뿜어내었고, 인근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했습니다. 모든 집과 차들이 화산재로 두텁게 뒤덮였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마을을 뒤덮은 화산재에 사람들은 숨을 쉬기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곧바로 국내에서 고품질 방진마스크 10,000개를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가 마스크 및 기타 긴급구호물품을 분배해주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코로나가 극심하지 않았던 터라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고, 날아다니는 화산재에 천이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더불어 위기상황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함께 지원했습니다.



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 난민캠프 지원 사업

## 베네수엘라 경제난민 쉼터 지원사업



2020년 임시보호소에 머물렀던 베네수엘라 난민  
**333명**



함께한 국제파트너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세계식량계획(WFP)



8

올해 아드라코리아는 먼 길을 이동하는 베네수엘라 난민을 위해 에콰도르에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본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2020년 3월 기준 인구의 17%에 달하는 500만명이 국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에콰도르 최남단 지역 와끼야스에서 베네수엘라 난민을 위한 임시보호소(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임시거주지, 영양가 있는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 이주 중이라도 안전하고 존엄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통과를 위한 비자 관련 법률자문, 정신심리상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위생교육과 놀이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총 333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쉼터를 이용했습니다. 쉼터에는 24시간 안전요원이 보초를 서기 때문에 안심하고 쉴 수 있고, 하루 세 끼 식사가 제공되며, 재정착을 돕기 위한 수경재배기술과 수공예 기술 훈련, 예방접



종,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학습서비스, 개인위생키트가 제공됩니다.

사람들은 쉼터에 들어오기 전 공동체 생활규칙을 듣고, 규정 준수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위생키트를 수령한 뒤 지정된 방에 입소하며, 만약 공동체 생활규칙을 어길 시에는 바로 퇴소 조치를 취하는 프로토콜도 개발하여 안전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입소 전 에콰도르 정부 공중보건부와 협력하여 증상을 체크하고, 일정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아드라에서 상태를 파악한 후 입소절차를 밟습니다. 아드라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처음 계획한 수용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강도, 성폭력, 코로나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9월에는 수용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5년 전부터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인접국가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며 강도,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 중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수용국가 지역주민들의 외국인혐오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오늘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식량이 떨어진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수혜자 스토리**

베네수엘라에서 온 아리아드나는 페루에서부터 이곳까지 남편과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울퉁불퉁한 길과 산맥을 넘어 무더운 낮과 추운 밤을 11일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높은 불안감과 식량, 쉼터 및 보호망이 없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여행 중에 여러 번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아드라가 제공하는 쉼터로 이송받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아드라를 축복해주시길 원하고, 아드라가 난민을 돕는 이 일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업: 해외 아동 결연



# “모든 아동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전세계 아드라 네트워크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전세계 아동 학교보내기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기본 교육은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교실에 더 많은 아이들의 발자국이 찍힐 수 있도록  
아드라와 함께해주세요.

방글라데시  
59명

캄보디아  
179명

인도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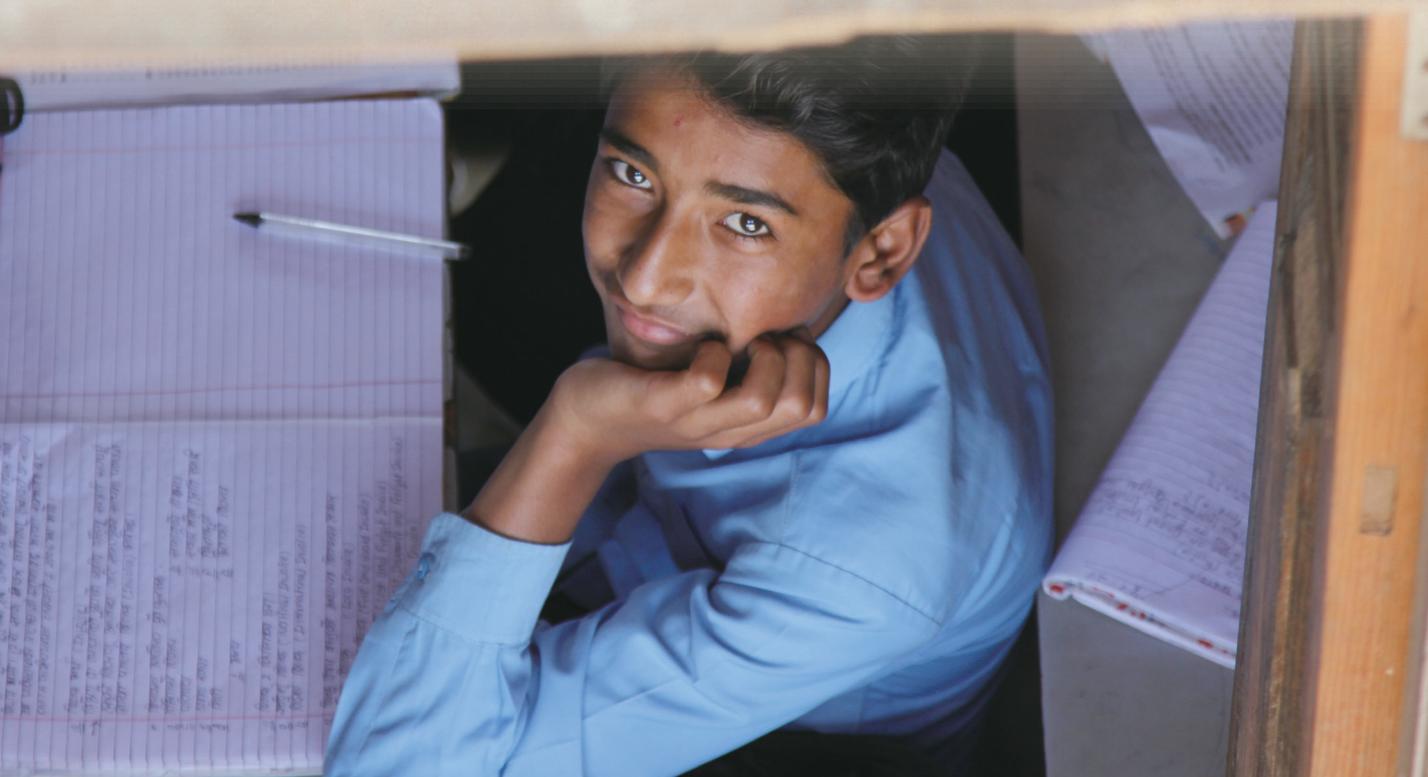
미얀마  
63명

네팔  
82명

필리핀  
67명

베트남  
165명

2020년 12월 기준



해외 사업: 해외 아동 결연

### 후원자의 편지

안녕, Tep Sakhana. 나는 너의 후원자야.  
 오늘 너의 연례발달보고서와 편지를 받았어.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어.  
 네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봤어.  
 나는 직업이 선생님이어서 아주 신기하고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  
 네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고  
 끝까지 널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길 바라.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하렴. 많이 보고 싶어!  
 나중에 꼭 한국에 놀러와서 나를 만나줘. 그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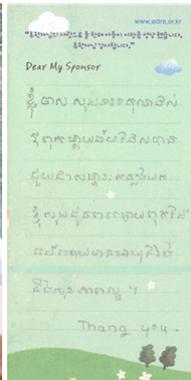


From, Yeri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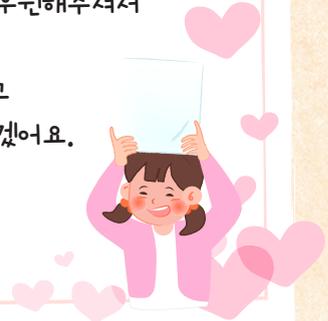


후원자 김예린씨는 캄보디아 아동 사카나와 2019년부터 연결되어  
 마음이 담긴 편지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 후원아동의 편지



후원자님,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국내 사업

# 무료급식: 노랑나비 날다

 <p>식사를 제공받은 분들 <b>10,400명</b></p>	 <p>방한의류를 제공받은 분들 <b>200명</b></p>	 <p>자활을 위한 숙소를 제공받은 분들 <b>2명</b></p>
-------------------------------------------------------------------------------------------------------------------------	------------------------------------------------------------------------------------------------------------------------	-----------------------------------------------------------------------------------------------------------------------------

12

아드라코리아는 15년 째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종각역 인근 공원에서 노숙인분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200여 명의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자(이하 “노숙인”)가 이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울시의 지원사업으로 노숙인 무료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랑(露浪)나비 날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명의 노랑나비는 노숙인의 ‘노’자와 유량의 ‘랑’을 합한 단어로 봄, 희망, 밝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께 내복과 목토시 등 추운 겨울을 대비한 방한의류를 제공해드렸고, 또한 아름다운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통해 이발서비스를 제공하여, 말끔하고 청결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전문 소리꾼을 섭외하여 시원한 판소리 공연으로 문화생활서비스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분들께 판소리 공연을 통해 짧은 시간이나마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 흥겨운 분위기에 무대 앞으로 나와서 신명나게 춤을 추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드라코리아는 노숙인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자활의 의지를 가진 노숙인 두 분께 숙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분들께 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지원되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더욱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이번 지원 경험을 토대로 자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더 많은 노숙인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연초에 노숙인분들께 더 나은 건강과 자활의지를 부여해주고, 또 문화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사그러들 줄 몰랐던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한 건강검진, 치과검진,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웃음치료 등 건강개선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사업

## 김장나눔사업



배분된 김치 2000kg

배분된 두유 250박스

김치와 두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가정 200가정



아드라코리아는 회기동과 청량리동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올해도 김장김치를 나눴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를 개최하여 10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김장을 담가왔지만 올해는 김치를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올해 12월 16일 김치 2톤과 삼육두유 250박스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중 회기동 주민센터에 김치 500kg와 두유 50박스, 그리고 청량리동 주민센터에 김치 500kg와 두유 50박스를 전달했고,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1000kg의 김치와 두유 1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에는 삼육식품, 삼육식품 총판협회의 후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 사랑의 집 짓기



아드라 사랑의 집 제 18호



올해도 아드라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진도에 아드라의 사랑의 집 제 18호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은 곰팡이가 핀 방 한 칸에 아버지와 딸 세 명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검침원이었고, 그의 두 번째 부인과도 헤어지면서 집 재산의 대부분을 부인이 갖고 나가버려 딸 세 명과 함께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아드라코리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리고 진도지역사회봉사회가 협력하였습니다. 진도남부교회와 이매면사무소 또한 사랑의 집짓기를 위해 재정 후원, 또는 직접 일하며 헌신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랑의 집 18호가 건축되었고, 11월 초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사랑의 집 준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사업: 코로나 피해 국내 지원

# 국내 코로나 피해가정 지원



국내 코로나 지원금  
총 5천 7백만원



14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약 한 달이 지나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대구시에 구호물품들이 집중되어 경산시, 봉화군과 같은 인근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물자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드라코리아는 3월 5일부터 피해 규모가 큰 경북 주민들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였고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료품을 조달하였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3월 9일, 우선적으로 경산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라면 300박스, 두유 300박스, 그리고 쌀 3톤의 식료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산시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3월 18일, '코로나19 이겨내기' 모금 후원금과 아드라 국제 본부 후원 자금으로 경북 봉화와 청도군의

주민들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쌀국수 500박스, 두유 500박스, 쌀 5톤의 식료품을 2차 지원하였습니다. 후원한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센터, 코호트 시설 등에 배포가 되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 긴급하게 식료품을 공급한 후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속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 사업: 코로나 피해 해외 지원

## 베트남



물품을 전달 받은 저소득층 가정  
**150가정**



베트남은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청정국가'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가 없는만큼 그 이면엔 철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생계를 잃고 식량이 떨어져 배를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아드라 베트남과 여성개발지원센터, 장애인 협회와 협력하여 긴급식량과 위생물품을 지급했습니다. 쌀과 라면, 피쉬소스, 식용유, 말린 땅콩 등, 그리고 마스크와 비누. 가장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생계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 필리핀



필리핀 지역 병원 지원  
**14곳**



공공시설 개수대 설치  
**63곳**



심리지원을 받은 의료인력  
**500명**

아드라는 필리핀 지역병원 14곳에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해주었고 슈퍼마켓이나 버스환승센터 등 63곳의 공공시설 앞에 발로 작동하는 개수대를 설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선에서 일하는 병원 인력들은 긴 업무 시간과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 증가하는 확진자 수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이러한 병원 인력 500명에게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온라인그룹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 태국 난민 캠프



태국 난민 캠프 코로나 피해 지원  
**총 9곳 캠프 8만명**

아드라코리아는 지난 7월부터 태국의 현지 파트너인 아드라 타이랜드를 통하여 태국-미얀마 국경에 있는 9곳의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PROTECT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유렵연합은 본 사업을 위해 약 55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캠프 난민들과 인근 마을주민들을 포함한 약 81,22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세숫비누, 빨래비누, 스펀지, 행주로 구성된 위생 용품과 함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수칙을 포함한 코로나19 교육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또한 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마을 내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 매홍손 주, 칸차나부리 주, 탁 주에서 총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학생들을 위한 만화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책자와 2차 위생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북사업: 구호지원

# 아드라 북한 이야기



16

아드라코리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BS2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통일백세>에 출연하여 아드라가 과거 북한에서 수행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지원, 베이커리 공장 운영, 별무리 카페 운영, 평양의 크리스마스 풍경, 사리원 소아과 병원 재건축,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립, 아동 영양 공급, 북한의 설 명절 분위기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에서 소개했던 에피소드 중, 당시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마르셀 와그너의 생생한 수기입니다. 아무쪼록 속히 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한 번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북한 땅에 발을 내딛다

"2001년 겨울, 저는 아드라 스위스 사무총장과 함께 처음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이 분단된 이래로 스위스군 경비대가 판

문점 비무장 지대에 주둔하였습니다. 북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자를 발급받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곧 일하게 될 곳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달리며 북한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했으며 넓은 열차 도착플랫폼 등이 몇 개밖에 켜져 있지 않아 무척 어두웠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차역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표지판에 영어표기가 없어 출구를 찾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다행히 몇 사람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나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출구 밖에는 여러 명의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환영해주었습니다.

### 아드라 북한 사무소에서의 사업

아드라 스위스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2002년 5월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계 통역사를 제공해주었고 그분은 제게 함경 남부 지역에 도움의





▲ 지난 2018년, 아드라코리아는 당시 대북사업을 함께했던 아드라 직원들을 초청하여 <대북교류 협력 시 NGO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대북지원사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적해있는 일들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북한에서 일한 4년 동안 식량 안보, 건강, 위생,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개인 후원자, 유엔, 대사관 및 EU로부터 기금을 받아 7개의 도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대학과 다양한 배경에서 온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은 다방면의 지식과 전문 지식으로 사업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책임자들과 협력하는 것과 전문병원을 지원하여 환자에게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저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또 수백 개의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특별 영양식을 제공했으며, 대학교 엔지니어에게 바이오매스 또는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설치기술을 전수했습니다.

### 아드라 북한 직원들과의 친밀한 협동

저희 사무실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제 생각을 풍요롭게 해주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저를 격려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서 해변이나 강둑 근처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김치와 밥, 불고기를 먹으며 성공을 자축하곤 했습니다. 후원자의 기대와 정부의 기대가 다를 때는 다함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으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단체 북한철수 명령이 떨어진 2005년 말까지 한 번도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 북한을 떠나던 날

북한 철수 명령이 떨어진 후 2006년 1월 10일,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오전 5시에 잠에서 깬지만 여느 날처럼 조깅을 나가거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예매가 마쳐진 교회처럼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서쪽 하늘의 화려한 일몰을 볼 수 있었던 정들었던 4층 빌라를 뒤로한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양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空空 얼어붙어 있었으며 일부는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저희는 짧은 시간동안 함께 사진을 찍고 포옹을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기 전 세관을 통과하며 여권에 마지막 도장을 받고 저는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떠났습니다.”

마르셀 와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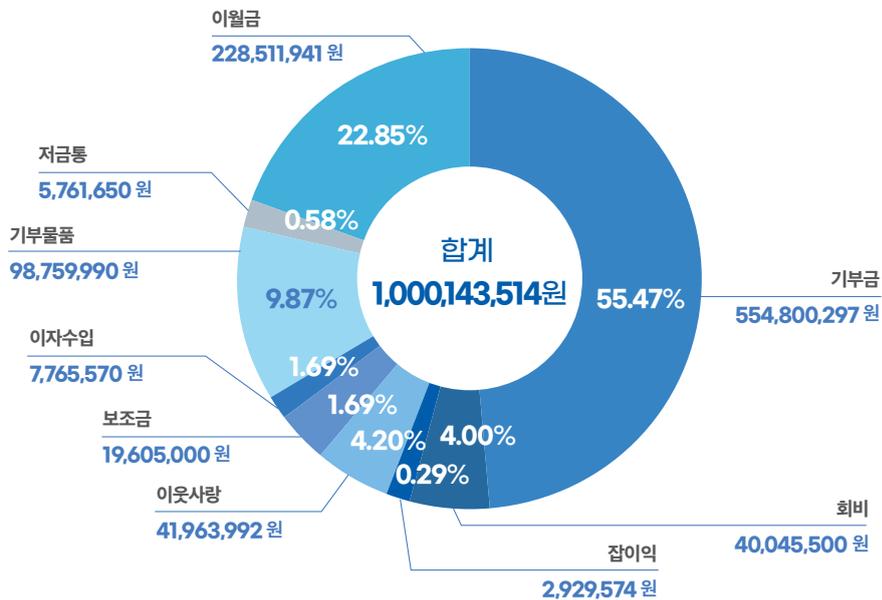
현 아드라 오스트리아 사무총장



## 2020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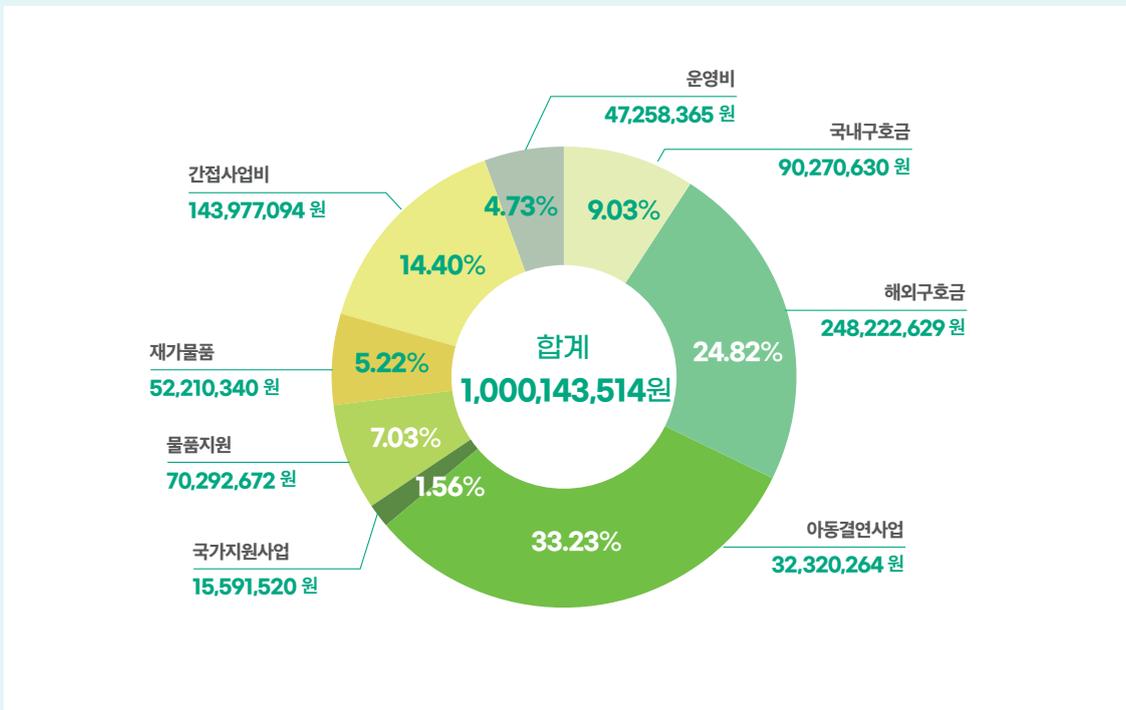
### 수입

내역	금액	비율
기부금	554,800,297	55.47%
회비	40,045,500	4.00%
저금통	5,761,650	0.58%
이웃사랑	41,963,992	4.20%
보조금	19,605,000	1.69%
이자수입	7,765,570	0.78%
기부물품	98,759,990	9.87%
잡이익	2,929,574	0.29%
이월금	228,511,941	22.85%
<b>합계</b>	<b>1,000,143,514</b>	<b>100.00%</b>



지출

내역	금액	비율
국내구호금	90,270,630	9.03%
해외구호금	248,222,629	24.82%
아동결연사업	332,320,264	33.23%
국가지원사업	15,591,520	1.56%
물품지원	70,292,672	7.03%
재가물품	52,210,340	5.22%
간접사업비	143,977,094	14.40%
운영비	47,258,365	4.73%
합계	1,000,143,514	100.00%



# 2020년 후원자명단(총 1,927명)

## 개인

강경선	강경수	강공수	강난주	강동관	강명길	강문기	강미단	강민희	강병주	강보경	강상진	강석규	강석우	강선구	강승례	강수지	강영선	강영숙	강영주
강옥용	강요한	강윤경	강윤식	강은경	강윤규	강의자	강진용	강정애	강정수	강정희	강정숙	강정희	강지숙	강찬수	강준관	강희숙	강현숙	강희자	고간식
고봉숙	고상일	고선경	고수열	고승석	고영경	고원자	고철선	고정숙	고중경	고철선	공경숙	공복수	공은숙	곽병철	곽영환	곽윤옥	곽은실	곽정미	
곽준철	구금자	구명호	구병도	구상희	구자영	구정자	구주명	구현서	구희자	구효민	권기옥	권기용	권기현	권대건	권영숙	권영희	권미경	권미양	권성관
권순화	권영수	권영식	권오국	권오숙	권용걸	권재선	권재현	권춘자	권하영	권혁균	권혁우	권혁주	권희중	김수복	금영미	금은동	금은철	기분수	기상도
김 호	김기일	김갑규	김갑수	김강현	김건국	김건태	김경근	김경미	김경배	김경숙	김경애	김기호	김길영	김길자	김나영	김남길	김남영	김명록	김명숙
김교훈	김국환	김귀석	김규량	김규배	김규하	김금미	김기돈	김기동	김기문	김기수	김기순	김기열	김기호	김길영	김길자	김나영	김남영	김남호	김남호
김순녀	김순란	김순례	김순만	김순보	김순진	김순심	김순신	김순애	김순주	김순호	김순희	김순영	김순희						
김신애	김안일	김애설	김양택	김연순	김연식	김연철	김영구	김영근	김영기	김영동	김영미	김영선	김영성	김영숙	김영순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영훈	김영희	김예민	김예식	김옥순	김옥애	김옥자	김용도	김용례	김용미	김용백	김용복	김용순	김용욱	김용운	김용주	김용지	김용현
김원기	김원미	김원상	김원재	김유미	김유민	김유생	김윤경	김윤민	김윤상	김태애	김윤호	김윤희	김은니	김은섭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이별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재	김인정	김인현	김자연	김자원	김재림	김재복	김재범	김재수	김재선	김재현	김재호	김재홍	김재호	김정순	김정애
김정민	김정민	김정수	김정순	김정숙	김정열	김정욱	김정희	김정희	김재금	김중대	김중영	김중열	김중현	김중희	김주돈	김주연	김주영	김주홍	김준수
김준표	김지영	김지은	김지민	김지혜	김진선	김진섭	김진숙	김진솔	김진영	김진자	김진주	김진중	김진희	김진희	김창식	김창호	김창희	김채수	김철이
김춘자	김치현	김태균	김태수	김태숙	김태영	김태원	김택규	김판호	김명훈	김하늘	김하나	김해수	김해숙	김해영	김해준	김효준	김효준	김효진	김효진
김현태	김현희	김형도	김형숙	김형식	김형환	김혜경	김혜진	김혜련	김혜린	김홍구	김홍나	김현선	김현희						
김희준	김희동	김희복	김희숙																
남서희	남서희	남선숙	남성우	남소희	남시윤	남정옥	남정자	남진우	남호민										
라미리	류 미	류길주	류두은	류미서	류성주	류상태	류승호	류영애	류유영	류인복	류종현	류희석	류희곤	마상무	마정남	맹은섭	맹은찬	문 현	문성은
문순자	문승환	문영덕	문영순	문옥영	문정숙	문정순	문정애	문진희	문진희	문해일	문현정	민경태	민관현	민인홍	민상식	민원근	민은경	민정식	민진홍
박 현	박경희	박고은	박광순	박교선	박근수	박규현	박근규	박근환	박금순	박금옥	박기훈	박노중	박다빈	박동래	박동수	박동순	박동수	박동수	박동수
박문걸	박문순	박미경	박미진	박미숙	박미영	박미애	박미자	박민구	박민자	박병준	박병준	박복규	박봉희						
박성수	박성순	박성자	박성준	박성진	박성하	박세문	박세진	박소진	박소형	박순순	박수미	박순규	박순금	박순옥	박순민	박슬기	박승렬	박시남	박시은
박안라	박양순	박연숙	박영숙	박영순	박옥춘	박옥희	박완규	박용애	박원영	박유민	박윤식	박윤애	박은경	박은조	박은준	박이혜	박이숙	박인숙	박인옥
박재숙	박진국	박정길	박정숙	박정원	박정은	박정일	박정택	박정희	박재진	박조영	박중수	박중심	박준복	박준섭	박지윤	박지희	박진규	박진식	박진희
박찬영	박찬용	박찬우	박찬일	박찬철	박찬수	박찬영	박찬희	박태길	박태선	박광우	박대일	박향숙							
박후남	반기희	반성식	방진욱	방형분	방혜정	배동선	배병희	배성미	배수정	배순국	배영희	배인숙	배지연	배지혜	배창진	배창현	배춘우	배혜경	백성봉
백승근	백승덕	백승환	백재연	백재원	백정갑	백점근	백찬원	백춘희	백하람	백홍순	백영순	변경영	변경보	변영기	변영숙	변윤식	복윤식	상지현	서동숙
서봉운	서지문	서성민	서순식	서순숙	서영덕	서영숙	서영숙	서영실	서영자	서용숙	서우영	서은경	서은주	서은채	서인석	서정민	서재만	서정원	서정원
서지현	서지훈	서창숙	서준근	서행남	서행숙	서현식	서혜리	서홍석	서영미	서영진	석은선	설대식	설은경	설진석	성경자	성기모	성기석	성기철	성낙기
성보라	성부자	성영아	성영환	성윤기	성준영	성현진	소본이	소경석	손경민	손경진	손기두	손기원	손덕춘	손매자	손상오	손유구	손정순	손정순	손정순
송창우	송한근	송화자	송효영	송 암	송 찬	송경자	송경준	송규태	송기봉	송기태	송명수	송미숙	송미자	송미희	송민영	송성용	송수복	송수희	송재자
송영주	송영환	송완순	송윤정	송은영	송은정	송재현	송중현	송준호	송하나	송하나	송행진	송현자	송희아	신나영	신대규	신동욱	신동혁	신동현	신동훈
신명환	신민식	신민진	신서영	신순자	신승복	신승업	신혜미	신홍수	심경희	심미자	심병준	심상현	심소녀	심영자	심영자	심유라	심은희	심인희	신재우
심초미	심향숙	심하숙	안 풍	안디숙	안도우	안명근	안명희	안미경	안병숙	안석찬	안수경	안수자	안순복	안순옥	안순혜	안승희	안영도	안용자	안용호
안정여	안준환	안진희	안창별	안혜남	양규식	양미희	양선주	양선애	양승금	양승숙	양은혜	양인숙	양재석	양진희	양태호	양현주	양희숙	양희숙	양희숙
엄기호	엄길수	엄덕현	엄명숙	엄미선	엄영자	엄유정	엄정희	여도경	여명숙	여민찬	여소민	여영희	여영정	여인애	여재원	엄성섭	엄숙자	엄시열	엄정도
오남숙	오남숙	오미숙	오선애	오선옥	오선자	오시석	오영민	오영실	오영화	오용근	오용필	오원배	오윤근	오은지	오자영	오홍순	오준환	오창선	오창환
오하늘	이근숙	이경선	이경순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진숙	이진숙	이원진	이원진	이희희	이태용	이광동	이광열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유민석	유병찬	유상진	유선향	유설아	유수경	유숙자	유승숙	유언나	유양자	유용만	유용식	유은아	유은영	유은혜	유정란	유정순	유정희	유재성	유현숙
유희영	유효준	윤 원	윤경희	윤광영	윤영옥	윤미림	윤병수	윤선덕	윤선진	윤승희	윤수진	윤숙미	윤순노	윤순덕	윤순자	윤애경	윤영민	윤영자	윤영진
윤인국	윤재성	윤재정	윤정민	윤정숙	윤정화	윤종성	윤주원	윤창세	윤대성	윤한진	윤혜민	윤화현	윤희원	윤희섭	윤희섭	윤희섭	윤희섭	윤희섭	윤희섭
이강필	이근숙	이경선	이경순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진숙	이진숙	이원진	이희희	이태용	이광동	이광열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유기영
이나라	이안영	이남수	이남숙	이덕분	이동숙	이동아	이동우	이동탁	이동희	이득찬	이민득	이명근	이명미	이명숙	이명재	이명창	이미경	이미숙	이미숙
이미화	이미희	이민성	이민용	이민자	이민지	이병국	이병기	이병옥	이병운	이병주	이병찬	이병학	이복숙	이복순	이부옥	이상숙	이상애	이상익	이상용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규	이석원	이석준	이석진	이석기	이선남	이선미	이선자	이선희	이설경	이성규	이성영	이성우	이성일	이성진	이세용



## 후원 및 자원봉사자 안내



### 후원 안내

#### 아드라코리아 정기후원

아드라코리아의 회원이 되세요. 매일 정기적으로 자동납부나 계좌이체를 통해 아드라코리아의 사업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아동 자매결연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자매결연을 위해 매월 3만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후원하시는 분에게는 대상 아동의 사진과 액자, 자기소개서 및 편지 등을 보내드리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7개 국가의 아동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드라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물품기부

해외와 국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문구류 등 후원하실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관리상 새 물품만 받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전화로 신청하기

일반 후원 : 02)3299-5257

아동 결연 : 02)3299-5251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핸드폰으로 신청하기

① 검색창에 검색

① QR코드 스캔



일시후원 QR코드



정기후원 QR코드

## 자원봉사 안내

### 🕒 시간기부



#### 해외자원봉사자 모집

파송국가 :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등

모집인원 : 각 나라별 1~2명

신청자격 : 만 23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로서 영어 사용이 가능한 자

활동내용 : 개발지원사업, 아동결연사업, 기타

지원내용 : 숙식제공, 활동비 월 \$500, 보험, 언어연수, 기타 (항공료 50% 보조)

####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인원 : 전문가 및 조력할 수 있는 봉사자 상시모집

모집분야 : 목조건축, 목공, 전기, 타일, 설비, 도배, 기타

활동지역 : 수도권, 지방(거주지역 중심)

지원내용 : 단복, 숙식, 교통, 해외봉사 기회 제공

\*개인 여건에 따라 1일 활동도 가능함

#### 노숙인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5시~6시 30분

장소 : 서울 종각역 인근 서린공원(SK서린빌딩 옆)

내용 : 급식제공, 노래, 반주, 이발, 무료진료, 상담

인원 : 00명

\*기부금 및 식자재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 👥 재능기부



#### 번역봉사

모집인원 : 영어 번역이 가능한 학생 및 일반인 00명

활동지역 : 온라인으로 봉사 가능

내용 : 해외의 각종 편지 및 문서 번역작업

#### 홍보 봉사

모집인원 : 홍보업무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 00명

활동지역 : 온라인으로 봉사 가능

내용 : 아드라코리아 사업 및 활동 SNS 홍보작업(홍보 기사 작성, 홍보물 디자인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자원봉사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500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대표전화. 02-966-9550 팩스. 02-969-1329



**작은 도움이 기적을 낳습니다.**



## ADRA is..

### **선두적인 국제 민간구호단체입니다.**

아드라는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구호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18년 미국에서 설립된 민간원조단체로서 1997년, 유엔(UN)경제사회이사회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국제NGO입니다. 아드라코리아는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등록된 국제개발구호기구로 118개의 아드라 국가사무소 중 23개의 지원국 사무소에 속하여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외계층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외 계층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아드라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배출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영적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DRA

## 아드라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민족적,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연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4천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난민지원, 식수지원, 교육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 필리핀 탈 화산 폭발피해 지원



긴급제공된 마스크의 수

**10,000개**



마스크를 공급받은 필리핀 피해주민의 수

**5,000명**

2020년 1월 12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의 탈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 기둥이 10킬로미터 이상 치솟아 화산쇄설물을 뿜어내었고, 인근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했습니다. 모든 집과 차들이 화산재로 두텁게 뒤덮였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마을을 뒤덮은 화산재에 사람들은 숨을 쉬기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곧바로 국내에서 고품질 방진마스크 10,000개를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가 마스크 및 기타 긴급구호물품을 분배해주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코로나가 극심하지 않았던 터라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고, 날아다니는 화산재에 천이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더불어 위기상황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함께 지원했습니다.



해외 사업: 인도적 지원

# 난민캠프 지원 사업

## 베네수엘라 경제난민 쉼터 지원사업



2020년 임시보호소에 머물렀던 베네수엘라 난민  
**333명**



함께한 국제파트너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세계식량계획(WFP)



8

올해 아드라코리아는 먼 길을 이동하는 베네수엘라 난민을 위해 에콰도르에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본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2020년 3월 기준 인구의 17%에 달하는 500만명이 국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에콰도르 최남단 지역 와끼야스에서 베네수엘라 난민을 위한 임시보호소(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임시거주지, 영양가 있는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 이주 중이라도 안전하고 존엄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통과를 위한 비자 관련 법률자문, 정신심리상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위생교육과 놀이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총 333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쉼터를 이용했습니다. 쉼터에는 24시간 안전요원이 보초를 서기 때문에 안심하고 쉴 수 있고, 하루 세 끼 식사가 제공되며, 재정착을 돕기 위한 수경재배기술과 수공예 기술 훈련, 예방접



종,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학습서비스, 개인위생키트가 제공됩니다.

사람들은 쉼터에 들어오기 전 공동체 생활규칙을 듣고, 규정 준수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위생키트를 수령한 뒤 지정된 방에 입소하며, 만약 공동체 생활규칙을 어길 시에는 바로 퇴소 조치를 취하는 프로토콜도 개발하여 안전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입소 전 에콰도르 정부 공중보건부와 협력하여 증상을 체크하고, 일정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아드라에서 상태를 파악한 후 입소절차를 밟습니다. 아드라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처음 계획한 수용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강도, 성폭력, 코로나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9월에는 수용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5년 전부터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인접국가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며 강도,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 중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수용국가 지역주민들의 외국인혐오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오늘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식량이 떨어진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수혜자 스토리**

베네수엘라에서 온 아리아드나는 페루에서부터 이곳까지 남편과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울퉁불퉁한 길과 산맥을 넘어 무더운 낮과 추운 밤을 11일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높은 불안감과 식량, 쉼터 및 보호망이 없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여행 중에 여러 번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아드라가 제공하는 쉼터로 이송받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아드라를 축복해주시길 원하고, 아드라가 난민을 돕는 이 일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업: 해외 아동 결연



# “모든 아동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전세계 아드라 네트워크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전세계 아동 학교보내기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기본 교육은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교실에 더 많은 아이들의 발자국이 찍힐 수 있도록  
아드라와 함께해주세요.

방글라데시  
59명

캄보디아  
179명

인도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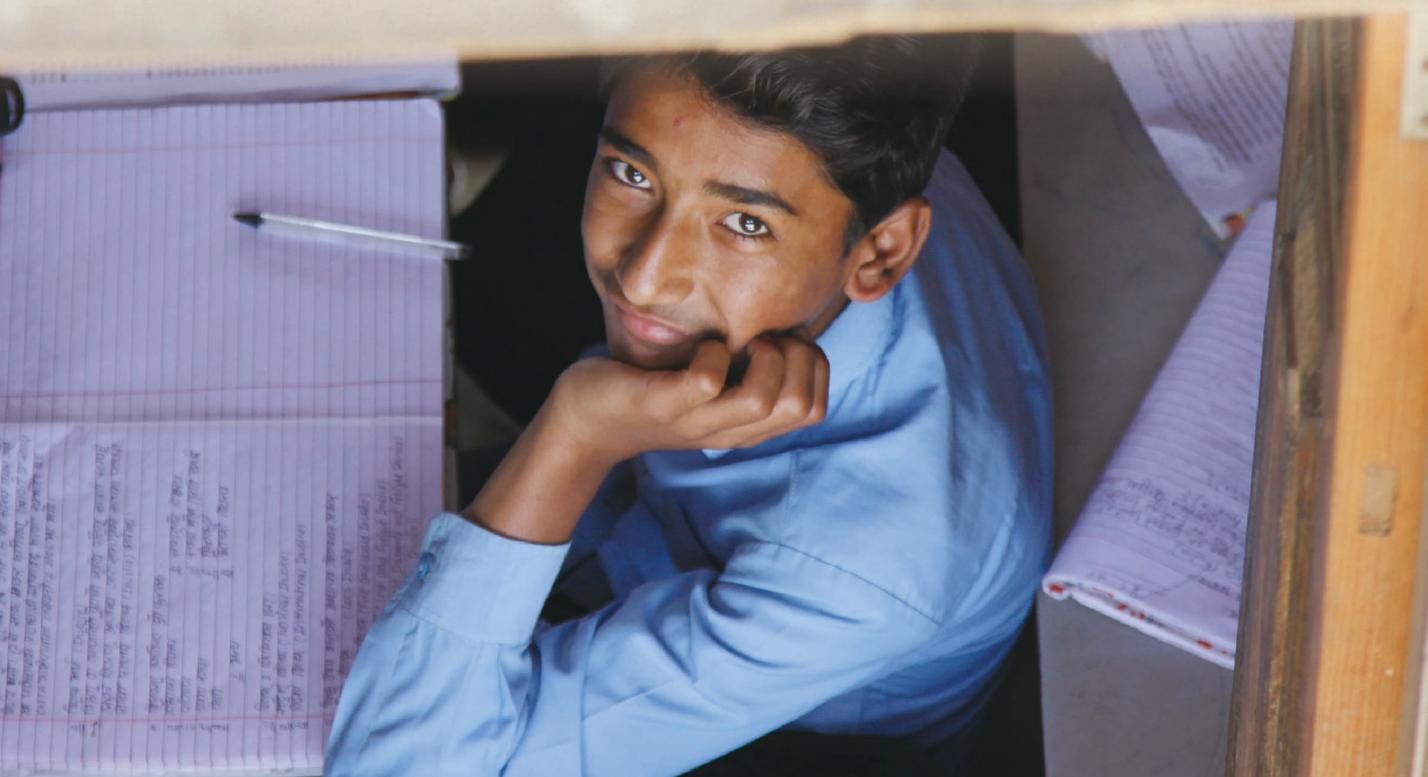
미얀마  
63명

네팔  
82명

필리핀  
67명

베트남  
165명

2020년 12월 기준



해외 사업: 해외 아동 결연

### 후원자의 편지

안녕, Tep Sakhana. 나는 너의 후원자야.  
 오늘 너의 연례발달보고서와 편지를 받았어.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  
 네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봤어.  
 나는 직업이 선생님이어서 아주 신기하고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  
 네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고  
 끝까지 널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길 바라.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하렴. 많이 보고 싶어!  
 나중에 꼭 한국에 놀러와서 나를 만나줘. 그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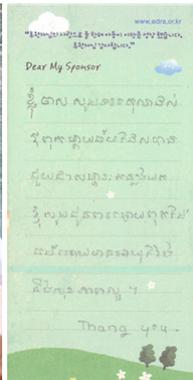


From, Yeri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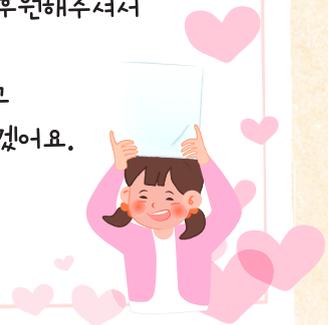


후원자 김예린씨는 캄보디아 아동 사카나와 2019년부터 연결되어  
 마음이 담긴 편지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 후원아동의 편지



후원자님,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국내 사업

# 무료급식: 노랑나비 날다

 <p>식사를 제공받은 분들 <b>10,400명</b></p>	 <p>방한의류를 제공받은 분들 <b>200명</b></p>	 <p>자활을 위한 숙소를 제공받은 분들 <b>2명</b></p>
-------------------------------------------------------------------------------------------------------------------------	------------------------------------------------------------------------------------------------------------------------	-----------------------------------------------------------------------------------------------------------------------------

12

아드라코리아는 15년 째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종각역 인근 공원에서 노숙인분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200여 명의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자(이하 “노숙인”)가 이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울시의 지원사업으로 노숙인 무료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랑(露浪)나비 날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명의 노랑나비는 노숙인의 ‘노’자와 유량의 ‘랑’을 합한 단어로 봄, 희망, 밝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께 내복과 목토시 등 추운 겨울을 대비한 방한의류를 제공해드렸고, 또한 아름다운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통해 이발서비스를 제공하여, 말끔하고 청결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전문 소리꾼을 섭외하여 시원한 판소리 공연으로 문화생활서비스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분들께 판소리 공연을 통해 짧은 시간이나마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 흥겨운 분위기에 무대 앞으로 나와서 신명나게 춤을 추기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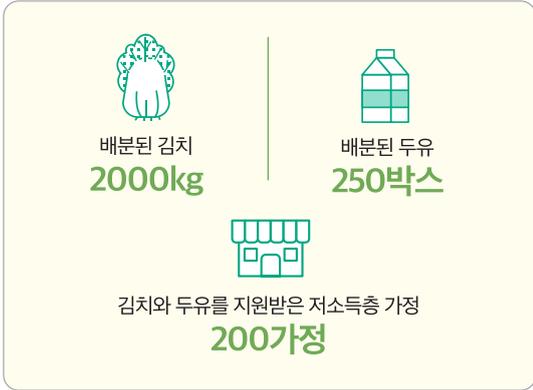
이에 더하여 아드라코리아는 노숙인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자활의 의지를 가진 노숙인 두 분께 숙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분들께 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지원되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더욱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이번 지원 경험을 토대로 자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더 많은 노숙인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연초에 노숙인분들께 더 나은 건강과 자활의지를 부여해주고, 또 문화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사그러들 줄 몰랐던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한 건강검진, 치과검진,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웃음치료 등 건강개선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사업

## 김장나눔사업



배분된 김치 2000kg

배분된 두유 250박스

김치와 두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가정 200가정



아드라코리아는 회기동과 청량리동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올해도 김장김치를 나눴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를 개최하여 10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김장을 담가왔지만 올해는 김치를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올해 12월 16일 김치 2톤과 삼육두유 250박스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중 회기동 주민센터에 김치 500kg와 두유 50박스, 그리고 청량리동 주민센터에 김치 500kg와 두유 50박스를 전달했고,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1000kg의 김치와 두유 1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에는 삼육식품, 삼육식품 총판협회의 후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 사랑의 집 짓기



아드라 사랑의 집 제 18호



올해도 아드라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진도에 아드라의 사랑의 집 제 18호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은 곰팡이가 핀 방 한 칸에 아버지와 딸 세 명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검침원이었고, 그의 두 번째 부인과도 헤어지면서 집 재산의 대부분을 부인이 갖고 나가버려 딸 세 명과 함께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아드라코리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리고 진도지역사회봉사회가 협력하였습니다. 진도남부교회와 이매면사무소 또한 사랑의 집짓기를 위해 재정 후원, 또는 직접 일하며 헌신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랑의 집 18호가 건축되었고, 11월 초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사랑의 집 준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사업: 코로나 피해 국내 지원

# 국내 코로나 피해가정 지원



국내 코로나 지원금  
총 5천 7백만원



14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한 후 약 한 달이 지나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대구시에 구호물품들이 집중되어 경산시, 봉화군과 같은 인근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물자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드라코리아는 3월 5일부터 피해 규모가 큰 경북 주민들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였고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료품을 조달하였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3월 9일, 우선적으로 경산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라면 300박스, 두유 300박스, 그리고 쌀 3톤의 식료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경산시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3월 18일, '코로나19 이겨내기' 모금 후원금과 아드라 국제 본부 후원 자금으로 경북 봉화와 청도군의

주민들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쌀국수 500박스, 두유 500박스, 쌀 5톤의 식료품을 2차 지원하였습니다. 후원한 물품은 지역 사회복지센터, 코호트 시설 등에 배포가 되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 긴급하게 식료품을 공급한 후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속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 사업: 코로나 피해 해외 지원

## 베트남



물품을 전달 받은 저소득층 가정  
**150가정**



베트남은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청정국가'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가 없는만큼 그 이면엔 철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생계를 잃고 식량이 떨어져 배를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드라코리아는 아드라 베트남과 여성개발지원센터, 장애인 협회와 협력하여 긴급식량과 위생물품을 지급했습니다. 쌀과 라면, 피쉬소스, 식용유, 말린 땅콩 등, 그리고 마스크와 비누. 가장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생계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 필리핀



필리핀 지역 병원 지원

**14곳**



공공시설 개수대 설치

**63곳**



심리지원을 받은 의료인력

**500명**

아드라는 필리핀 지역병원 14곳에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해주었고 슈퍼마켓이나 버스환승센터 등 63곳의 공공시설 앞에 발로 작동하는 개수대를 설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선에서 일하는 병원 인력들은 긴 업무 시간과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 증가하는 확진자 수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이러한 병원 인력 500명에게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온라인그룹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 태국 난민 캠프



태국 난민 캠프 코로나 피해 지원  
**총 9곳 캠프 8만명**

아드라코리아는 지난 7월부터 태국의 현지 파트너인 아드라 타이랜드를 통하여 태국-미얀마 국경에 있는 9곳의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PROTECT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유렵연합은 본 사업을 위해 약 55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캠프 난민들과 인근 마을주민들을 포함한 약 81,22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세숫비누, 빨래비누, 스펀지, 행주로 구성된 위생 용품과 함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수칙을 포함한 코로나19 교육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또한 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마을 내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 매홍손 주, 칸차나부리 주, 탁 주에서 총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학생들을 위한 만화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책자와 2차 위생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북사업: 구호지원**

# 아드라 북한 이야기



16

아드라코리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BS2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통일백세>에 출연하여 아드라가 과거 북한에서 수행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지원, 베이커리 공장 운영, 별무리 카페 운영, 평양의 크리스마스 풍경, 사리원 소아과 병원 재건축,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립, 아동 영양 공급, 북한의 설 명절 분위기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에서 소개했던 에피소드 중, 당시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마르셀 와그너의 생생한 수기입니다. 아무쪼록 속히 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한 번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북한 땅에 발을 내딛다

“2001년 겨울, 저는 아드라 스위스 사무총장과 함께 처음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이 분단된 이래로 스위스군 경비대가 판

문점 비무장 지대에 주둔하였습니다. 북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자를 발급받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곧 일하게 될 곳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달리며 북한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했으며 넓은 열차 도착플랫폼 등이 몇 개밖에 켜져 있지 않아 무척 어두웠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차역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표지판에 영어표기가 없어 출구를 찾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다행히 몇 사람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나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출구 밖에는 여러 명의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환영해주었습니다.

### 아드라 북한 사무소에서의 사업

아드라 스위스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2002년 5월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계 통역사를 제공해주었고 그분은 세계 환경 남부 지역에 도움의





▲ 지난 2018년, 아드라코리아는 당시 대북사업을 함께했던 아드라 직원들을 초청하여 <대북교류 협력 시 NGO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대북지원사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적해있는 일들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북한에서 일한 4년 동안 식량 안보, 건강, 위생,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개인 후원자, 유엔, 대사관 및 EU로부터 기금을 받아 7개의 도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대학과 다양한 배경에서 온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은 다방면의 지식과 전문 지식으로 사업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책임자들과 협력하는 것과 전문병원을 지원하여 환자에게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저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또 수백 개의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특별 영양식을 제공했으며, 대학교 엔지니어에게 바이오매스 또는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설치기술을 전수했습니다.

### 아드라 북한 직원들과의 친밀한 협동

저희 사무실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제 생각을 풍요롭게 해주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저를 격려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서 해변이나 강둑 근처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김치와 밥, 불고기를 먹으며 성공을 자축하곤 했습니다. 후원자의 기대와 정부의 기대가 다를 때는 다함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으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단체 북한철수 명령이 떨어진 2005년 말까지 한 번도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 북한을 떠나던 날

북한 철수 명령이 떨어진 후 2006년 1월 10일,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오전 5시에 잠에서 깬지만 여느 날처럼 조깅을 나가거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예매가 마쳐진 교회처럼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서쪽 하늘의 화려한 일몰을 볼 수 있었던 정들었던 4층 빌라를 뒤로한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양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空空 얼어붙어 있었으며 일부는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저희는 짧은 시간동안 함께 사진을 찍고 포옹을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기 전 세관을 통과하며 여권에 마지막 도장을 받고 저는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떠났습니다.”

마르셀 와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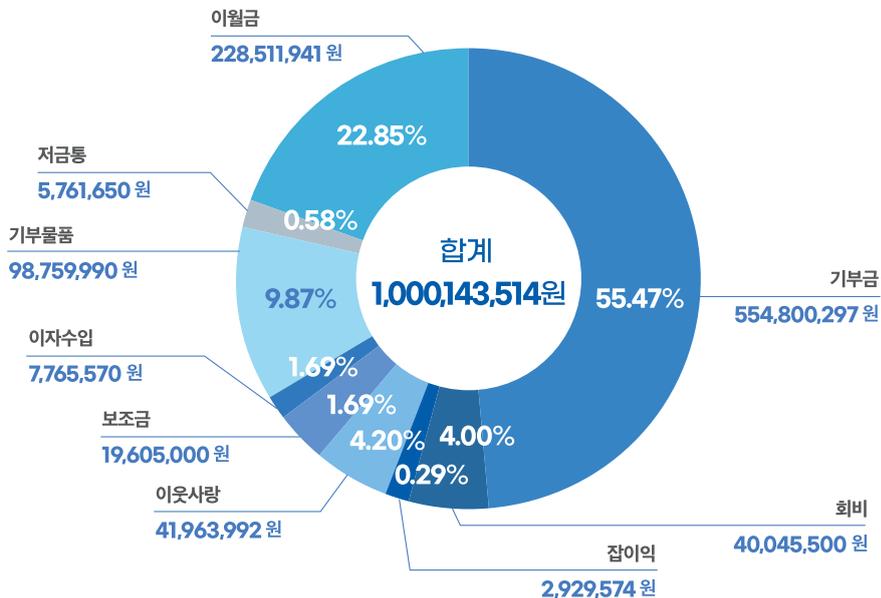
현 아드라 오스트리아 사무총장



## 2020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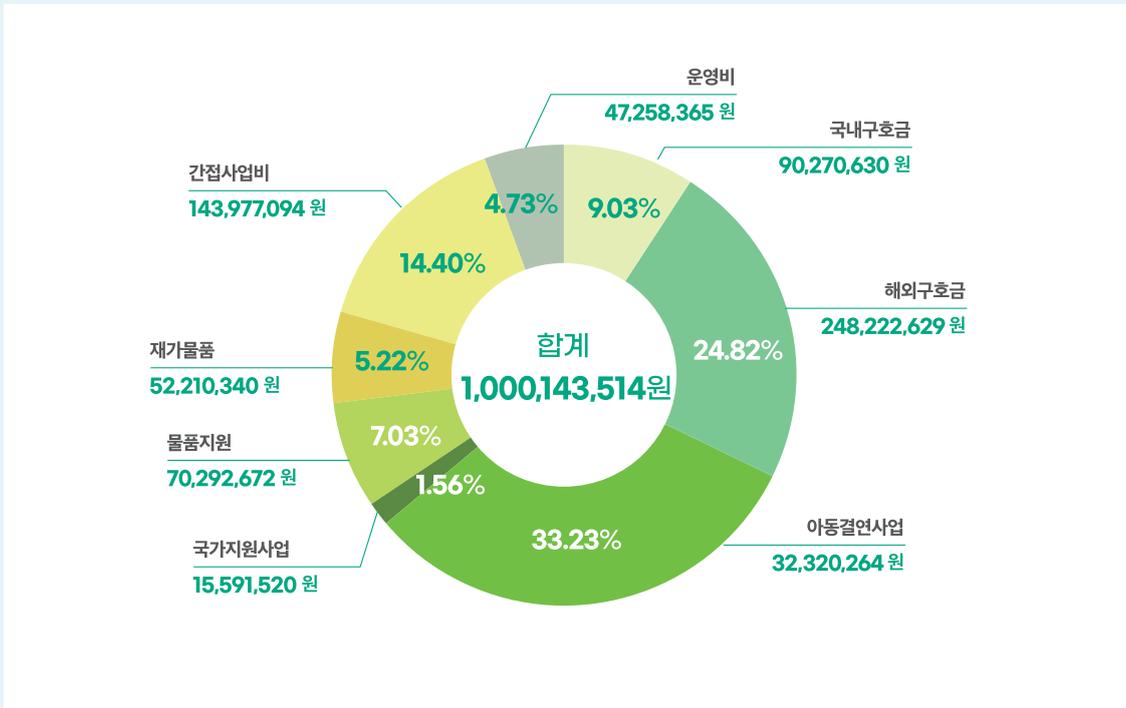
### 수입

내역	금액	비율
기부금	554,800,297	55.47%
회비	40,045,500	4.00%
저금통	5,761,650	0.58%
이웃사랑	41,963,992	4.20%
보조금	19,605,000	1.69%
이자수입	7,765,570	0.78%
기부물품	98,759,990	9.87%
잡이익	2,929,574	0.29%
이월금	228,511,941	22.85%
합계	1,000,143,514	100.00%



지출

내역	금액	비율
국내구호금	90,270,630	9.03%
해외구호금	248,222,629	24.82%
아동결연사업	332,320,264	33.23%
국가지원사업	15,591,520	1.56%
물품지원	70,292,672	7.03%
재가물품	52,210,340	5.22%
간접사업비	143,977,094	14.40%
운영비	47,258,365	4.73%
합계	1,000,143,514	100.00%



# 2020년 후원자명단(총 1,927명)

## 개인

강경성	강경수	강공수	강난주	강동관	강영길	강문기	강미단	강민희	강병주	강보경	강상진	강석규	강석우	강선구	강승례	강수중	강수지	강영선	강영숙	강영애	강영주	
강옥용	강요한	강윤경	강윤식	강은경	강윤규	강의원	강전용	강정재	강정주	강정숙	강정희	강종덕	강지숙	강찬수	강준분	강하식	강현국	강현숙	강희덕	강희자	고갑식	
고봉숙	고상일	고선경	고수열	고승석	고영경	고영자	고철선	고정순	고중경	고철선	공경순	공복수	공수점	공은숙	곽병철	곽옥용	곽정미	곽준철	구금자	구병도	구상희	
곽준철	구금자	구영도	구병도	구상희	구자영	구정자	구주명	구현서	구희자	구효민	권기용	권기용	권기현	권대건	권영숙	권영희	권미영	권미양	권성관	권성열	권순미	
권순화	권영수	권영식	권오국	권오숙	권윤걸	권재선	권재현	권춘자	권하영	권혁균	권혁우	권혁주	권희중	금수복	금영미	금은동	금은철	김분수	김상도	김민	김숙	
김 호	김기일	김갑규	김갑순	김강현	김건국	김건태	김경근	김경미	김경배	김경숙	김경애	김경옥	김기호	김길영	김길자	김낙형	김남길	김남영	김영란	김영민	김영숙	
김교훈	김국환	김귀석	김규량	김규배	김규하	김금미	김기돈	김기동	김기문	김기수	김기순	김기열	김기호	김길영	김길자	김낙형	김남길	김남영	김남호	김남호	김영주	
김순녀	김순란	김순례	김순만	김순보	김순선	김순심	김덕남	김덕희	김도형	김동근	김동섭	김동신	김동우	김동욱	김동원	김동욱	김동욱	김영국	김영민	김영숙	김영주	
김미리	김미선	김미영	김미은	김미정	김미진	김민성	김민주	김민홍	김병수	김병영	김병희	김보경	김보배	김복경	김복만	김복수	김복수	김복이	김봉순	김부일	김부자	
김상규	김상준	김상태	김상필	김상호	김상휴	김석배	김석수	김석인	김석훈	김선도	김선례	김선섭	김선숙	김선식	김선애	김선영	김선일	김선호	김선화	김삼아	김성근	
김성근	김성녀	김성수	김성영	김성은	김성익	김성현	김성호	김성효	김세용	김세철	김소희	김승호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인	김수정	김수현	김숙이	김숙자	김숙희	
김신애	김안일	김애일	김양택	김연순	김연선	김연철	김영국	김영근	김영기	김영동	김영미	김영선	김영성	김영숙	김영순	김영선	김영애	김영원	김영일	김영일	김영자	
김영춘	김영환	김영훈	김영희	김예민	김예식	김옥순	김옥예	김옥자	김용도	김용례	김용미	김용백	김용복	김용순	김용운	김용운	김용주	김용지	김용현	김용호	김원규	
김원기	김원미	김원상	김원채	김유미	김유연	김유생	김윤경	김윤민	김윤상	김태대	김윤호	김윤희	김은니	김은섭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을운	김이림	
김이범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재	김인정	김인현	김자연	김자원	김재림	김재복	김재범	김재수	김재선	김재현	김재호	김재홍	김재호	김정순	김정재	김정민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	김정수	김정순	김정실	김정열	김정옥	김정자	김정희	김재금	김중대	김중영	김중열	김중현	김중희	김주돈	김주연	김주영	김주영	김주홍	김준수	김준수	
김준표	김지영	김지은	김지인	김지혜	김진선	김진섭	김진숙	김진실	김진영	김진자	김진주	김진중	김진희	김진화	김찬식	김창호	김창희	김창호	김채성	김철이	김철희	
김춘자	김치현	김태교	김태수	김태숙	김태환	김태용	김태원	김태규	김관호	김명훈	김하늘	김하나	김해수	김해숙	김해영	김해경	김효준	김효중	김효진	김훈배	김홍달	
김현태	김현희	김형도	김형숙	김형식	김형환	김혜경	김혜란	김혜리	김혜영	김혜연	김홍구	김홍란	김현선	김현희	김효경	김효준	김효중	김효진	김훈배	김홍달	김홍자	
김홍준	김희동	김희복	김희숙	김희숙	김희영	김희정	김희중	김희준	김희철	김희택	나승남	나영목	나영선	나영진	나영진	나혜선	나혜선	나혜선	나희숙	남기주	남동희	
남서희	남서희	남선숙	남성우	남소희	남시윤	남정옥	남정자	남진우	남호민													
라미리	류 미	류길주	류두은	류미서	류성주	류성태	류승호	류영애	류우영	류인택	류종현	류희석	류희곤	마상무	마정남	맹은섭	맹은찬	문 현	문성은	문순옥	문순이	
문순자	문승환	문영덕	문영순	문옥영	문정숙	문정순	문정희	문진호	문창진	문해일	문현정	민정재	민관현	민한홍	민상식	민원근	민원경	민정식	민진홍	민창호	민창호	
박 현	박경희	박고은	박광수	박고선	박근수	박규현	박근규	박근환	박금순	박금옥	박기훈	박노중	박다빈	박동래	박동수	박동순	박동수	박동수	박래구	박명옥	박명옥	
박문걸	박문순	박미경	박미진	박미숙	박미영	박미애	박미자	박민구	박민자	박병준	박병준	박복규	박봉선	박봉희	박분분							
박성수	박성순	박성자	박성준	박성진	박성하	박세문	박세진	박소진	박소형	박소순	박수미	박수규	박수금	박수옥	박수인	박슬기	박승렬	박시남	박시은	박신국	박안나	
박안라	박양순	박연숙	박영숙	박영순	박옥춘	박옥희	박완규	박유애	박원영	박유미	박윤실	박윤애	박은경	박은조	박은준	박이레	박이솔	박인숙	박인옥	박인자	박익자	
박재숙	박정근	박정길	박정숙	박정현	박정은	박정일	박정택	박정희	박제진	박조영	박중수	박중심	박준복	박준섭	박지윤	박지희	박진규	박진식	박진희	박찬양	박찬양	
박찬영	박찬용	박찬우	박찬일	박찬철	박찬수	박창은	박창희	박태길	박태선	박광우	박해일	박향선										
박후남	반기희	반성식	방진옥	방혜분	방혜정	배동선	배영희	배성미	배수정	배순국	배영희	배인숙	배지연	배지혜	배창진	배창현	배춘우	배해경	백성봉	백성남	백세현	
백승근	백승덕	백승환	백재연	백재원	백정갑	백점근	백찬원	백춘희	백하람	백홍순	백홍순	변경영	변경보	변영기	변영숙	변윤식	복윤식	상지현	서동숙	서동훈	서복식	
서봉운	서지문	서정민	서순석	서순숙	서영덕	서영숙	서영숙	서영실	서영자	서용숙	서우영	서은경	서은주	서은채	서인석	서정원	서재남	서정원	서정원	서정원	서정원	
서지현	서지훈	서창숙	서춘근	서행남	서행준	서현석	서혜리	서희석	서영미	서영진	석은선	설대식	설은경	설진석	성경자	성기모	성기석	성기철	성낙기	성명모	성미희	
성보라	성부자	성영아	성영향	성윤기	성준영	성현진	소본이	소성서	손경민	손경애	손경진	손기두	손기원	손덕춘	손매자	손양모	손윤구	손인성	손정윤	손준옥	손지민	
손창우	손한근	손화자	손효영	송 암	송 찬	송경자	송경준	송규태	송기봉	송기태	송명수	송미숙	송미자	송미화	송민영	송성수	송수복	송수희	송재자	송영자	송영자	
송영주	송영환	송완순	송윤정	송은영	송은정	송재현	송중현	송준호	송하나	송하나	송행진	송현자	송희아	신나영	신대균	신동용	신동희	신동현	신동훈	신만균	신명환	
신명환	신민식	신민정	신서영	신순자	신승복	신승남	신승우	신애숙	신영수	신예진	신예름	신예림	신용구	신용범	신용성	신원식	신은경	신인철	신재무	신정순	신종우	
신희희																						
심초미	심향숙	심하숙	안 풍	안다숙	안도우	안명균	안명희	안미경	안병숙	안석찬	안수경	안수자	안순복	안순옥	안순혜	안승희	안영모	안용자	안용호	안재순	안진남	
안정여	안준환	안진희	안창범	안해남	양규식	양미희	양선규	양선애	양승금	양승숙	양은혜	양인숙	양재석	양진희	양태호	양현우	양형호	양효순	양희섭	이지선	이지원	
양기주	양길수	양덕현	양명숙	양미순	양영자	양영정	양정희	여도경	여영숙	여민찬	여소민	여영향	여영정	여인애	여재원	염성섭	염숙자	염시열	염정도	예미경	오국환	
오남숙	오남숙	오미숙	오선애	오선숙	오선자	오시석	오영민	오영실	오영화	오용근	오용범	오원배	오윤관	오은지	오자영	오홍순	오준환	오창선	오창준	오태원	오태원	
오하루	이건홍	이혜정	이문주	이영희	이영동	이영숙	이진숙															
유민석	유병찬	유상진	유선향	유설아	유수경	유숙자	유승숙	유이나	유양자	유용만	유용식	유은아	유은영	유은혜	유정란	유정순	유정희	유재성	유현숙	유형환	유혜민	
유화영	유효중	윤 원	윤경희	윤광영	윤영옥	윤미림	윤병수	윤선덕	윤선진	윤송희	윤수진	윤숙미	윤순노	윤순덕	윤혜자	윤애정	윤영민	윤영자	윤영진	윤윤식	윤이나	
윤인국	윤재성	윤재준	윤정림	윤정민	윤정숙	윤정화	윤종성	윤주원	윤창세	윤대성	윤희진	이교은	이관희	이광숙	이광은	이규호	이규희	이규민	이규진	이규소	이규미	
이나라	이안영	이남수	이낙남	이덕분	이동숙	이동아	이동우	이동탁	이동희	이득찬	이민득	이명권	이명미	이명숙	이명재	이명창	이미경	이미숙	이미승	이미영	이미진	
이미화	이미희	이민성	이민용	이민자	이민지	이병국	이병기	이병옥	이병운	이병주	이병찬	이병학	이복숙	이복순	이부옥	이상숙	이상애	이상영	이상용	이상주	이상필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규	이석원	이석준	이석진	이석기	이선남	이선미	이선자	이선희	이설경	이성구	이성규	이성영	이성우	이성일	이성진	이세용	이선담	



## 후원 및 자원봉사자 안내



### 후원 안내

#### 아드라코리아 정기후원

아드라코리아의 회원이 되세요. 매일 정기적으로 자동납부나 계좌이체를 통해 아드라코리아의 사업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아동 자매결연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자매결연을 위해 매월 3만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후원하시는 분에게는 대상 아동의 사진과 액자, 자기소개서 및 편지 등을 보내드리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7개 국가의 아동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드라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물품기부

해외와 국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문구류 등 후원하실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관리상 새 물품만 받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전화로 신청하기

일반 후원 : 02)3299-5257

아동 결연 : 02)3299-5251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핸드폰으로 신청하기

① 검색창에 검색

② QR코드 스캔



일시후원 QR코드



정기후원 QR코드

## 자원봉사 안내

### 🕒 시간기부



#### 해외자원봉사자 모집

파송국가 :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등

모집인원 : 각 나라별 1~2명

신청자격 : 만 23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로서 영어 사용이 가능한 자

활동내용 : 개발지원사업, 아동결연사업, 기타

지원내용 : 숙식제공, 활동비 월 \$500, 보험, 언어연수, 기타 (항공료 50% 보조)

####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인원 : 전문가 및 조력할 수 있는 봉사자 상시모집

모집분야 : 목조건축, 목공, 전기, 타일, 설비, 도배, 기타

활동지역 : 수도권, 지방(거주지역 중심)

지원내용 : 단복, 숙식, 교통, 해외봉사 기회 제공

\*개인 여건에 따라 1일 활동도 가능함

#### 노숙인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5시~6시 30분

장소 : 서울 종각역 인근 서린공원(SK서린빌딩 옆)

내용 : 급식제공, 노래, 반주, 이발, 무료진료, 상담

인원 : 00명

\*기부금 및 식자재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 👤 재능기부



#### 번역봉사

모집인원 : 영어 번역이 가능한 학생 및 일반인 00명

활동지역 : 온라인으로 봉사 가능

내용 : 해외의 각종 편지 및 문서 번역작업

#### 홍보 봉사

모집인원 : 홍보업무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 00명

활동지역 : 온라인으로 봉사 가능

내용 : 아드라코리아 사업 및 활동 SNS 홍보작업(홍보 기사 작성, 홍보물 디자인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자원봉사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500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대표전화. 02-966-9550 팩스. 02-969-1329



**작은 도움이 기적을 낳습니다.**